외대학보

단기 4293년 4월30일 발행
제 34 호
(허가번호 제99호)

발행인 홍 출 홍
편집겸인쇄인 함 이 근
주 간 경 현 진
한국외국어대학
발 행 소 외 대 학 보 사
TEL. ⑤ 6091 · 6092 · 6093
일부 3.0 환
인쇄소 동아출판사공무국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

(단기4291. 3. 27. 제3종 우편물인가)

5월의 메모

△ 3일 석가탄일
△ 5일 어린이날, 입하
△ 8일 어머니날
△ 21일 소 만
△ 29일 부 처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민주신장과 학생본연의 자세

4,19데모 이후에 가질 우리의 태도

사 설

지난 4월 19일의 역사적 학생 봉기(蜂起)로 4월 26일의 실질적인 민주혁신의 서광을 갖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전국 국민은 일인 정치로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면에 걸쳐 신음하여 왔고, 부패를 일신하는 자유를 갈구하여 왔다. 실상 학도들은 8·15 해방의 기쁨도 크게 맛보기 전 6·25의 참변속에서 핵일간 주리의 헌허 동작에 구속되었고, 1·4후퇴등 갖은 고초와 싸워 왔거니와, 그보다 더 가슴 아프던 일은 일정(日警)도 하지 못하던 무자별 총격과 그것으로 무참히 쓸어진 국민에 대해서 사과와 참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 경찰, 그리고 갖은 악법을 행사하여 부정 불법 선거등을 자행하고도 큰 소리로 호통치던 고급관리를 대할 때, 과연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월 28일의 대구에서의 고등학생들의 학원의 자유를 절규하고 나선 데모를 기점으로 하여, 3월 15일 마산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데모, 4월 18일 서울에서의 고대학생 부정 불법선거 규탄, 그리고 마침내는 4월 19일의 거국적 전 서울시내 학생데모로 학도들은 그들의 선혈을 아낌 없이 이나라 민주주호에 뿌리고갔다. 경찰들의 최루탄과 무차별 사격이란 무엇을 희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며, 묻고저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한 피비린내의 혼적을 거울삼아 확고하고 완전한 자주 민주 공화국이 이룩되기만을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학원회복 전한 자유가 확보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과거 역사상 더불어 이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도들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다.

4월 29일 우리는 다시 학원에 돌아 왔다.

4·19의 역사적 학생 봉기와 과거 학도들이 부참히 피를 흘리고 죽었음은 단지 이나라의 위기만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주경이었을 뿐 학생으로써 경치적 관여로 행한것이 아님은 만인이 주지 하는 바이지만, 학원으로 돌아온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태산같이 쌓여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다. 학원은 우리의 낙원이여, 우리의 안식처이며, 국가가 백척간두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리 칠 용기와 인내를 가르치주고 일깨워 준 곳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나라 민주 신장과 더불어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생 본연의 자세에서, 자중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전진하기를 명세해야 할 것으로 단다. 물의와 싸울 때는 용맹한 사자와 같이 다부다가도 일단 우리의 목적단 바를 달성 했을 때 이성(理性)으로 돌아 와, 질서회복을 고창하고 나섬이 우리들의 자세이며 학원의 자유를 수호함이 우리의 의(義)이다. 더불어 주진성이란 낙인을 찍고 우리를 백안시(白眼視)하던 저 선전됐다는 분명인 나라의 학도와 겨누어 학원의 금자탑을 쌓고저 노력해야 할 것 또한 우리의 태도이다.

아직 완전한 혁신 제2공화국의 정서는 각 방면에서 정돈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우방에서 우리들의 태도를 논여겨 주시하고 있음과, 이북의 철부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책동들이 적정치는 이때를 당하여 보다 더 냉철하고 꿋꿋하여 고난을 헤쳐고 나가야 할것이다. 지금껏 우리의 고귀한 선혈은 헛되이 없었거니와 우리의 혁신 공화국이 완전한 민주조직위에 공고히 위치 할 때까지 우리는 이나라를 지켜야 할은 물론이려니와 그 탁(濁)한 정치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학원의 면학만의 자유가 확립될 때 까지 정의로써 사수해야 한다.

학도는 정의의 투사며, 혁경에서의 횃불이며, 자주로운 학원의 정화를 위하여 학생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냉철하게 우리의 이성을 만천하에 선양해야 할것이다.

외국어 습득과 활용의 필요성

—신입생들에게 주는글—

3월 17일 본대학 제3회 졸업생을 내어 보냈과 동시에 신입생 여러분을 맞는 초롯한 마음 비길바없다.

해방이후 무수하게 세워진 대학중에서도 오늘 영광스러운대학시절의 문고리를 외국어대학에서 벗기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느 학교나 교육이념과 실천목표는 훌륭한것 이겠으나 본대학은 외국어의 습득, 활용으로 한국을 국제구중으로 향상시키고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60년대의 벽찬 숨결이 지구의 자전과 함께 거칠어 가고 과학이 인류의 운명을 심판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은 정체되어 움직일줄을 모르고 있다.

전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전만 아직 영세 소농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태적인 농구 이용과 인간노동으로 소득은 그들이 흘린 피땀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농업뿐이 아니라 공업도 입업도 광업도 무역까지도 겨자를 산출하고 희학, 어업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많은 불모지와 미개척지를 남겨 놓은채 일꾼 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진상태에 머전 한국을 건져내는 길은 오직 신속한 기일 내에 외국의 문화를 흡수하여야만 하고 젊은이들의 힘찬 노력이 요구되는것이다.

여기에 외국과의 국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어의 습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본대학에서는 외국어의 활용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문화부, 실무부, 외교부의 셋으로 나누어 문화부를 통하여서는 외국 시적의 번역 혹은 외국 문화 전체와의 교섭등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화교류와 수입과 소개등으로 인지의 첨단적인 개발과 지식의 보급으로서 국가 수준을 높일 수있는 길을 닦는 것이고 실무 혹은 외교부를 통하여는 실질적으로 경험과 실력을 양성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적정적으로 UN의 경정란 멤버의 일인으로 활약할 인물을 양성시키고저 하는것이다.

이런점에 있어서 타 대학보다 특색을 지니고 국내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니 세계 인류의 문화와 세계의 인종을 학문 또는 정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 실천의 견당에 돌이신 여러분은 현대한 이상이 무르익을수 있겠거늘, 자신의 앞날과 전공을 달리할 몇몇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바의 길을 취함이 좋을것이고, 속히 전학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개인에게 유익할 것이며 진실로 자기 수업을 위한 사당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올바른 태도일것이다.

지성으로서의 성찰과 교양을 중무히 할수도 있는 본대학을 뜻한바 있어 택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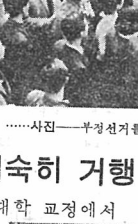
다시 내일을 위하여 끝이으는 희망과 경초한 기백으로 빈찬 학문의 발에서 최고 학부인 대학을 다니는 길은 이상을 마음껏 키우라 입학하면 곧 졸업이 오는 세월속에 4년위 오늘에는 뿌리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자중과 성실과 인내의 손길이 쉬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학원의젊은피로민주기둥세우던날

……사진——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본 대학과 각대학의 혼성 데모광경——종로 화신 앞에서……

입학식 엄숙히 거행

4월 9일 본대학 교정에서



지난 4월9일 하오 2시에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이 본 대학 교정에서 내빈과 학부형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안종복 서무과장의 사회에 의한 국민의례로 시작되었다

이날 박술종 학장님의 「나아에 법이 있듯이 대학에는 학칙이 있고 교수 여러 어른의 타이르심이 있으니 이것을 어기는 데에 고등 학교때보다 더 엄한 처단을 내리겠다는 것과 대학생들을 자각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설한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여야 할것이며……외국어에 능통한 지도적 인물 양성이 우리 대학의 목표」라는 훈사에 귀이어 입학식날 독려 이었고 계단이사장 최사룡 회장이 이사가 대독 하였으며 박규서 교무 과장의 신입생에게 일일회교수를 소개 시킨뒤 3시가 좀 넘어 주경한 만세 삼창으로 이날의 식을 끝 맺었다.

여러 분은 오늘부터 대학생입니다. 사회도 나가기 직전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의 책임을 세워 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여러 분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자주적인 정신 아래서, 두한히 여러 분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법이 있고, 또 지도자가 내리는 영(令)이 있듯이, 대학에는 학칙이 있고, 지도의 책임을지신 교수 여러 어른의 타이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때에 고등 학교 학생 때보다 더 괴로운 처단을 대학 당국은 여러 분에게 내리겠습니다. 자유가 커지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이고, 또 여러 분을 자주적인 독립인이라고 믿고 다루겠기 때문이니, 아들보다 조주(戶主)의 집이 무겁고, 또 행할 사리보다 주인의 걱정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리(事理)입니다.

대학은 사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의 문화를 높이는 직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분은 배우는 전문의 학문 및 기술과 함께 그 버전인 학문적 정신을 몸에 지녀야겠고, 인생을 바로 살아가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진력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외국어 대학입니다. 국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전달하고 동시에 한국어 위에 한국 문화가 있듯이 각 외국어 위에는 그 각 나라의 문화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움은 다만 말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해(理解)까으로는 외국의 문화를 수입하며, 발표 쪽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입니다.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것은 주로 정확한 판찰력, 민첩한 모방력 원만한 유추력(類推力), 강대한 기억력입니다. 이것이 고도(高度)로 발달된 사람은 말리, 비교적 쉽게 외국어에 숙달합니다.

그러나 어학적 재능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노력과 연습으로 어떤 정도의 진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의 일부는 외국어 대학이라니까 외국의 말만 배우는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과에는 다시 여러 분이 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문학, 외교 실무의 세 부(部)가 갈려 있으니 외국어 한 부 가지를 전공하면서 이외한 지식을 덧 붙여서 얻고 나아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학 한 가지만이라도 깊게 파고 들면 거기에 모든 상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국어에 능숙한 지도적 인물 양성이 우리 대학의 목표이니 낙오자 없이 정성된 태도로 오로지 한 길 걸어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내 말을 끝냅니다. (사진은 박학장)

학생운동을 생각하면서

자유가 없는, 민주적이 아닌, 법에 따르지 않는, 옳지 않은 일이 있어서는 개인도 상수 없고, 나라도 망친다고 개혁을부르짖지 이미 권리 잠고 있던계급을 물러나게 하는데 일마쯤 공헌한 것이 이번의, 남한, 학생 운동이니 이북의 학생들도 이를 본 따서 목숨 걸고 나선다면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실마리가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목숨의 희생이 상당히 클 것이어 누르는 힘이 강대하여 아마도 성공은 당분간 어려울것 같은 짐작하면서 비약사의 이번 학하(下野) 데모가 시험하였고, 미국의 민주적인 정신이 큰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주 독립인 이라면 법이 없어도, 또 남의 간섭이 없어도 자기의 판단으로 올게 일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 같이 밝은 세상에 독립국가로 세계의 인정까지 새로 받은 이 나라의 일꾼 지도자들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 이라고 규탄을, 비구나 그것도 나이 어린 학생 층으로부터 받아 가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니 부고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작년 11월1일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를 통하여 발표되었던 보고서에 한국 위정 당국이 부패하였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그 때에 반성하였어도 못되는 않았을 것인바 3·15 선거까지를 그것으로 계속하여 치루었으니 이제 부회하여도 멸어진 것이 다시 가지에 붙을수는 없다 이번 운동을 계기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발달된 나라 되기를 바라면서 정치계를 바라보면 그 희에 그만한 실공에 만족할 것이고, 그 여자(餘話)로 다른작은 불평 등 폭로함을 삼가며, 겸잖게 학문 닦는데 온 정력 기우리기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학장)

치안국에서 26, 27, 28일 김부위원장등 수습위원으로 활약

지난 4, 26 희거가 끝난 이수선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수습, 정돈 하기위하여 각 대학별로 경찰서를 책임맡아 질서 회복을 경주 (傾注)하였는데 본대학에서는 시내 각 단과대학이 모인 치안국에서 부위원장 김기병군은 본교장 30여명과, 치안국내 학생수습위원 의장으로 26, 27 28, 삼일간 세 2때방의 기름을 정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두에서 열활학을 하였다.

입영 연기 및 단축원 제출 요망

학생과에서는 충동기초 90년부터 2년도까지의 신입생 및 편입생들의 입영 연기원과 재학기간 단축원을 5월1일부터 30일 1개월동안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금년도 징집해당자로써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영기간 단축원」을, 졸업할때까지 입영을 연기코저하는 학생은「수학(修學)계속을 위한 입영 연기원」을 각각 학생과에 제출해 주기 바라며, 만약 기일내에 제출치 않는 학생은 학적보류만 해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커리큘럼 전면 개정

금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금년도 신입생 편입생 교무과에서는 지금까지의 교과과정에 많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번 학기 부터 전면적인 교과과정을 변경 실시하여 어학대학으로서의 면목 일신과 앞으로 있을 사회진출에 실질적 실력향상을 도모코저 하였다.

즉 이번 대폭변경된 교과과정은 주로 금년도 신입생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학년 이상 상급학년도 이에 준하여 수강하게 될 것이다.

아래에 변경된 교과과정의 주요 골자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이 70—80까지 이면것을 80학점으로 한정하여 선택과목을 최소 20학점으로 하고 제2외국어과목을 32학점으로, 공통전공과목을 Phonetics를 삭제하고 언어학(言語學)4학점, 졸업논문을 4학점으로 하며 교양과목은 종전과 같이20학점이다 매학기 평균 총 수강학점 허용한계는 20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질소에 따라 2학점까지, 교직과목 신청자는 4학점까지 추가수강 신청할 수있다. 1학년 매학기만은 26학점으로 하고. 전학기에 평균 B학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은 5학점까지 추가신청할 수 있다.

제2외국어의 1학기 5학점은 강좌 4학점과 작문 1학점을 합한것으로 금년도 신입생은 물론, 2학년은 현재 지정 배치된 5학점을 신청(종전에는 2년제2외국어18학점)수강하되 초과된 2학점은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특히 1학년은 1학년 제2외국어, 2학년은 2학년 제2외국어를 수강을 신청하되, 실력에 따라 상급반 제2외국어와 전공과목의 소요과목에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종래 문과부에 한한 교직과목을 각부(외교,문화,실무부)공통선택과목으로 채 배치 한다.

선택과목으로 외교,실무부에 한하던 심리학(心理學)을 문화부에도 설정하여 3부 공통으로 하고, 논리학(論理學)을 각부 공통과목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단 최기적인 것은 3.4학년에는 각 부별 (외,문,실무부)전공어학을 중설하여 매주 4시간씩 부별로 2년간 선택 수강한다. 졸업 총, 한정학점은 160학점이다.

교 수 진 소 개

금년도 단기 4293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본 대학 교수이학 강사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술종 (영)	교수학장	현대영문	
백남석 (영)	교수 과주임	영문법	
박규서 (영)	교수 교무과장	현대영문,	영작문
한교석 (영)	부교수	영어학개론,	현대영문
김인선 (영)	부교수	제 2 영어,	현대영문
Francis Call(영)	전강	시사영어,	영회화
최재서 (영)	전강	현대영문,	영미문학사
이태남 (교)	교수	현대세계문화,	문화사,
이진구 (불)	조교수과주임	불작문,	불문법
한윤필 (불)	교수	불문법,	작문, 고급불어
정병환 (불)	전강	제 2 불어,	현대불문학
이 환 (불)	전강	고급불어,	초급불어
허우성 (중)	교수	중문강독,	중국사정
김지일 (중)	부교수	현대작품선독,	중어회화
장학림 (중)	조교수	중어개론,	고문선독
전희수 (독)	부교수과주임	독문법,	독문학사
정치국 (독)	교수	시사독어,	고급독작문
함일근 (노)	부교수	시사노어,	중급노어
동 환 (노)	조교수	시사노어,	제이노어
차덕근 (노)	전임대우	중급노어,	근세노문학
한중원 (서)	교수	회교상업서어,	초급서어
김이배 (서)	전강 과주임	초급서어,	중급서작문
김법덕 (영)	전강	현대영문,	제이회어
정춘웅 (교)	교수	문화사,	
Maxwell (영)	전강	영회화,	
Hoyd (영)	전강	회교영어,	실무영어
Wilson (영)	전강	어문영어,	영미사강독

이하 강사

김창기 (영)	제2영어	
정인섭 (영)	영말음	
배문학 (영)	제2영어	영작문 현대영문
방홍주 (영)	영작문	제2영어
malone (영)	실무영어	
이신일 (영)	제2영어	
서의돈 (영)	제2영어	속기법 회계학
박옥출 (불)	발음법	제2불어 불회화
손우성 (불)	불문학사	
정기화 (중)	제2중어	
高登河 (중)	중국문학사	중국문화
도영철 (독)	초급독어A	초급독작문
김정진 (독)	초급독어B,	19세기 독문학B, 현대독문학
유병묵 (독)	과학독어 Ⅱ A	제2외국어
허림근 (독)	초급독어회화 C	Goethe, 19세기 독문학A
Vargas (서)	현대서문	고급서반아어 중급서어 회화A,
박동현 (교)	자연과학	
박상현 (교)	철학	
임창준 (교)	법학통론	
장기봉 (교)	국제법	
송중국 (교)	경제지리	통계학
한상현 (교)	동양사상사	
고병여 (교)	Greek	
이진숙 (교)	교육심리학,	심리학
주요섭 (교)	문학개론	
이중국 (교)	행정법	헌법
유봉노 (교)	상업통론	무역실천
진원중 (교)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원리
김현태 (교)	상법	
정문도 (교)	외교정책	
송 욱 (영)	현대영문	
한진영 (교)	체육	
심계천 (교)	자연과학	
박태훈 (교)	국어	
이강호 (교)	국어	국문학사
김계룡(중전)언어학		
Wells (독)	중급독어회화	노어회화
裏永勳 (중)	교체중어	
Peterson(서)서반아어번론		중급 서반아어B. 초급서어회화
Lawrence (영)	근대영문학	

※(교)는 교양과목.

이로 Chronicle

◇4월 19일, 이날은 독재와 불의의 관권앞에 학생들의 궐의와 민주주의가 승리, 신장(伸張)된 날. 학원의 정치도구화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악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키워 온 정의와 자유를, 그리고 젊음에의 정열을 어쩌지 못하느니 결국 이날, 우리는 찾을것을 찾은것뿐. 다만, 불의와 맞서 피를 뿜흘리고 희생된 영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명복을 기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9일 학생의거의 날의 일화 한토막——. 노어과 1학년 이상섭군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집가에 있던 어느 중학생에게 책가방을 맡겼었는데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집에 버린것으로 알고 있던중 5월 2일. 수위실로 찾아 온 중학생 그의 이름은 중동중학 야간 1학년4반에 있는 김병수군.

◇4월 19일, 그리고 4월26일의 역사적인 날들도 가고, 4월 29일 다시 우리는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 왔다. 동인의 겨울보다 화창하던 봄날임에도 그 침울하던 우리의 마음을 바야흐로 걷어 올리고 학원에 돌아온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더불어 캠퍼스의 녹음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거니——.

◇가끔 강의에 허동 지동 시간을 대어 가노라면 이미 파석이 보자란다. 서서 배울수도 없는 처지고 그냥 강의를 마치는수도 없어 딱한 처지를 당하는 때가 있으니 이럴땐 교무과와 담당 교수 사이에 미리 연락하여 병랍한 수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앙망.

◇학생수습원으로 머칠간 바쁜 걸음으로 일을 마친 학생활—모든 사람들이 학생을 전보다 더욱 대하여 주더라는것. 전연을 학생이 아니였겠나 마는…… 이제는 대학생의 긍지를 바로저 살려야 할 때인만큼 더 한층 자숙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헛됫도 어제의 헛됫은 아니려니.

◇시간이 끝날적 마다 느껴는 고통이 수업내로 줄어들게 되었으니 다행이긴 변소학문. 그러자 또 하나 걱정이 늘었는데 그것은 경차 닦아오는 우기에따라 수업후면 쉬일 장소가 없다는것 비온뒤 잔디에 앉을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벌써부터 수심개 마련해 주시기를.

4월19일은 실로 민주발전의 효시

미국문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것인가

김 인 선

빛깔전 쓰린이 닫나라에 휘성을 울려보내서 달 뒷면을 사진찍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놀랐다. 쓰면은 삼십분 이내에 미국본토를 순적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또한번 놀랐다. 이러한 위기에 있어서 미국문학을 배우는 학도들이 그문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가 미국에 가기는 1949년 1월6일 이었는데 미국은 상상할수 없으리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였다. 미국의 빈소는 너무 깨끗하여서 이런 학생은 한지장 무시장책 변소에서 책을 읽고 있다. 우리나라 빈소들은 도르킨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빈소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길은 넓고 곧으며 먼지 하나 없이 길을 걷기도 대단히 유쾌하다. 미국에는 피수들을 가둔 감옥 이외에는 한국에서 존히 볼수 있는 높은 담 이나 가시망 같은 출타리를 보지못했다 그리고 미국에 공산주의 단체가 있고 그집회가 있다는것을 듣고 또한번 놀랐다. 미국에서는 누구를 막는하고 자기는 공산주의자 라고 깃발에 등록만 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국은 자유롭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이렇게 아상적인 나라가 되기 까지의 미국 국민의 노력이 어떻것이며 미국문화의 특징 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은 미국문학을 통해서 찾아 분석해 보기로 하자.

× ×

1.미국문학 에서 우리는 높은 도덕과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을 볼수 있다.

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의 Great Stone face, 또는 A Scarlet Letter. Walt Whitman (1819—1892)의 Leaves of Grass와 Democratic Vistas 그리고 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의 American Scholar 혹은 Self-Reliance라는 수필과 Henry David Thoreau (1817—1862)의 Walden이란 작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제목은 America라는 것이며 무너져가는 미국사회의 올리와 도덕을 더지 없이 비판함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민주사회를 그려놨다는 것이다.

Hawthorne이 말하고있는 Adulterous Woman이란 죄를 진 사람은 영원히 그집을 벗을 수 없으며 그 사회는 영원히 멀방한다는 John the Baptist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이다. Thomas Hardy가 그리는 Adulterous Woman과는 대단히 다르다. Hardy는 Tess를 단지 그리고 나가 부지한 여성으로 보사하여 그것이 이런 사람의 탓이라기 보다 인간의 법률적인 악의 본능 치일 말했다. 그러나 Hawthorne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수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같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만 살때에 그 사회에 필말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했다. 그는 소설을 통해서 미국사회의 올리와 도덕을 향상시키려고 했으며 미국을 올산하게 비판함으로써 미국을 바로 잡으려고 한것이다. Hawthorne이나 Emerson이나 Whitman이나 Thoreau의 문학은 이렇 Model을 그린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솔직히 비판하는 이었다. 그들의 문학은 좋이 심리작에이며 중교적이며 애국적이었다.

Theodore Dreiser(1871-1945)도 역시 Sister Cary라는 소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물질과 같은 세일한 생활을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의 말하고 있으며 Dreiser가 말하는 인간의 최는 Cary와 같은 사회의 부지에 있다기보다 그 사회의 악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같이 Sherwood Anderson (1876—1941)의 Winesburgh Ohio와 Sinclair Lewis(1885-1951)의 Main Street, Babitt, 또는 It Can Happen Here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패된 미국사회와 싸울한 인간으로 부터 구원하려는 노력하는 미국문학가들의 진지한 모습을 잘 엿볼수 있다. 초기 미국문학에 나타난 인간은 고독에 잠기었고 사회에 섭입할것 같이 보사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꾸짖듯이 많이 비판적이며 애국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도덕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있다.

2. 미국문학에서 경직한 인간을 볼수 있다.

Tennessee Williams (1914—)의 Cat on a Hot Tin Roof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경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에는 불안과 파괴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Williams의 작품이 가치 있다면 그것은 경직한 인간을 그리려고 한데 있다 우리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것이 무엇일까. 미국문학을 연구할도 영국문학을 연구할도 중국 쏘련세계 어느나라 문학과 기술을 다배운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생활에서 Honesty란 요소가 없다면 우리사회에 희망은 없다 "Sell no Virtue to Purchase Power"이란 Franklin의 말과같이 우리의 정치를 잘아서 자유를 살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직은 인간성장의 성명이며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Earnest Heming way의 작품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도 인간은 경직해야된다는 것이다. Sun Also Rises에 나타난 Paris의 청년은 대단히 고독하고 불행한감을 늘 갖고 있으며 그 청년의 유일한 쾌락은 술 마시는 일 밖에 아무것도 없다. 경직하고 참된 친구를 잃은 청년은 고독을 따라 차라리 애프리카의 숲속을 즐기며 눈이 쌓인 높은 산 Kili manjaro 에서 죽으려 한다

The Old Man and the Sea는 그 문체(Style)부터 경직하다 Hemingway는 Steinbeck과 같이 심소불대(針小棒大)하지 않는다. 늙은 할아버지 Santiago는 Manolin이 하는 어린 소년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년 역시 그 할아버지를 따른다. 비록 그 노인이 잡았던 고기를 잃어 버렸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 큰 고기를 없어버리는 순간이야말로 누구나 분함과 실망을 가질것이다. 그러나 그 노인은 누구를 원망 한다든가 저주하며 실망하지않고 통감해 내일을 위하여 잠이든다. Hemingway 는솔직하고 장식이 없는 어부와 거짓이 없는 어린애를 주인공으로 했다. 그의 고기잡는 광경을 묘사한 문장을 읽어보자.

"You are killing me, fish…But you have a right to. Never have I seen a greater, or more beautiful, or a calmer or a more noble thing than You, brother. Come on and kill me. I don't care who kills who.

대단히 시원한 표현이다 Hemingway는 이 쓴때없는 장식을 하지 않는다. John Steinbeck의 Cannery에서 자연을 묘사한 한구절을 비교해보자.

The Carmel is a lovely little river. It isn't very long but in its course it has everything a river should have. It rises in the mountains, and tumbles down a while, runs through shallows, is dammed to make a lake, spills over the dam, crackles among round boulders, wanders lazily under sycamores, spills into pools where trout live.

그림을 보듯이 세밀 하기는 하나 Hemingay 처럼 박력은 없다.

3. 미국문학에서 종교는 그본질을 잃은듯 하다.

The Old Man and the Sea의 주인공인 늙은 할아버지 Santiago는 아주 원시적인 Cuba 사람 이며 어부 이다. 그의 종교는 미신에 가깝다 그는 어려빈 반복 해서 같은말로 기도를 중얼거린다.

"He will say ten Our Fathers and ten Hail Marys…"미국의 기독교는 오늘날 그 특징을 잃었고 인간적인 종교로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복을 자기마음 대로 태워의해 마음대로 교리를 만든다. 미국의 기독교는 신앙과 비판이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많다. 교파수만 하드래도 도 사제이 넘는다. 복음은 교리를 잃었고 기도와 예배는 그 진실성을 잃었다. 한국청년들이 미국을 불해 올게 보고 돌아로 모방 해야된다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살려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어야 된다. 미국문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신적인 혹은 도덕적인 문화 생활이라기보다 물질적인 호화로운 문화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미국문학이 God Damn이니 Son of bitch니 하는 말을 많이 써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New York 이나 Philadelphia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 섬섬한 감을 가지게 된다. 우리들은 경손히 하나님을 찾아야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우러워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 남 이라고 서로 의심 하며 미워 하고 시기 한다. 인간의 마지막 이란 인간이 인간을 믿을수 없게 되는 때이며 그것이 바로 이세상의 말세 이다.

T.S. Eliot 는 이세상을 Waste Land로 봤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은 귀 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 같으며 모두가 unreal 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이 unreal 하다고 보는 T.S. Eliot가 우리한국에 와서 서울을 보면 그는 무엇이라 말할가 한국의 도시야 말로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이며 제일 Unreal한 곳이라고 말할것이다. 장로교는 장로교 만이 옳고 감리교는 감리교만이 옳고 천주교는 천주교만이 옳다고 서로 배격하고 미워하며 저주한다면 그리고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는 거짓교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세계를 통해서 보드라도 그러한 분열 분파와 미움의 세계를 천국을 배우는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생각 할수없다. 사람들이 가져야할 인간의 「사랑」을 찾어 버리고 인간의 형태를 는 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도 알수 없는 고통비판 이며 자기 모순이다

4. 미국문학 에서 우리들은 Progressive Democracy를 찾어 볼수 있다.

Santiago는 늙은 뒤 얼마 되지안에 서서 죽을 것이며 그자신 그것을 잘 알고있다. 그할아버지는 집안 보살것 없는 가난한 어부이며 이웃은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따르는 소년 Manolin의 도움을 대단히 아틀답다 부모들이 팔려도 그는 물끄러 그들 따라 다녔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급급하지 않는가. 인간생활의 Harmony 이것이 Progressive Democracy 일것이다. 스승이 죽고 갈고 배우는 사람이 노예 갈라진 그것은 미천사회 이다. 우리들은 서로 「숫고」 서로 도와야 잘 산다 이다. Santiago는 자기가 잡았던 고기를 잃었서도 「하늘」이 있음을 믿었고 물기 벽해하여 Manolin 과 같이 다시금 고기잡이를 준비한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을 찾아 쫓고 그를 위로하며 돕는다는 인간 대단히 힘든 일 이다. 자기가 죽어야할 경우에 대신 죽으려고 나서는 친구가 이 세상에 몇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과 그 능력이 크다. "Let us agree that we do not agree"란 말은 미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잘 표현한 말 이다. 우리들은 어려빈 자기를 놓이 평가 대접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보다 가치있게 생각하며 자기 희생을 고집하고 절국 사회생활에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Manolin은 Santiago 할아버지에게 Beer 한잔을 사서 드리는 장면은 정보된 미국사회가 아니면 볼수 없는 현상 이다. 바야흐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와 경직된 정치가를 찾아 지를 돌리며 4월 혁명은 잘 났으나 이제 우리가 말아야 할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 하는가 를 배워야 한다. 난는 학생 들이 미국문학을 취미로 읽는 다기 보다 보다 나는 민주사회를 건설할때 부족각이 없도록 경직을 기우더 길은 사람이 된다면 관찰을 가지고 힘기울 바라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일경적인 멤버가 되기를 바란다. (부교주)

Jane Austen과 Mansfield Park 【上】

이 영 걸

I

Jane Austen의 부친 George Austen은 사골목사로,결혼도 역시 성직자의 딸인 Cassandra라는 여자와 하였다.Hampshire의 한 Steventon이라는 한적한 시골에 자리잡고 살면서 아들 여섯 딸 둘을 두었다. Jane Austen은 이중 일곱째로 1775년 12월19일 낳았다.

그녀의 교육은 얼마동안 학교에 갔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공부를했다. Austen집은 이웃 사람들이 문필(文名)을 이년 인정받았었다 그녀의 형 Emma를 써내자 그녀의 작가적기위는 확고부동해졌다

1816년에 접어들어 Austen은 와병하여 一년동안을 거의 꼼짝을 못이 되었다 그러나 성격이 워낙 명랑하시라 그녀의 생활은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이 놀 수 없었다. 이중년에도 소설을 계속해 써서「Persuasion」을 탈고했다. 1817년 봄에도 새작품을 시작했으나 그해 법은 악화해 이해 7월 18일 죽자 그녀의 유해는 Winchester Cathedrale에 묻혀졌다.

II

전개한바대로 Austen은 그녀의 생애를 통해 六편의 소설을 썼다 Sense and sensibility (1811), Pride and Prejudice (1813), Mansfield Park (1814), Emma(1816)Northanger Abbey (1818), Persuasion (1818). 이 소설들은 전부가 Jane Austen의 생활체험관찰의 주목같은 소산으로 작가가 실제 생활체험한 high-middle class provincial society를 취급한 것으로서 섬세한 irony 와 부정한 묘사로 가정 생활을 이루었다

이 방면의 선구요, 어떤면에서 사실주의의 개척자라 하겠다. Mansfield Park는 전개한 대로 1814년에 발간되었다. 이 소설은 작품분위기로 볼때 그녀의 가장 밝이 읽히는 「Pride and Prejudice」와 대차적인 작품이다. 후자가 Austen의 작품중 가장 밝은 편을 다루었다면,전자는 이 표현 방법적인 모조였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슬픈한 작품이다. 줄잡아 말해 Austen 에게서는 Thomas Hardy나 다른 하나의 규수작가인 George Eliot의 작품의 근저에 흐르는 비극성이란 찾아 낼 수 없다. Austen의 사상성과 작품이란 분석하고 보면 우리는 그녀가 심각 유현한 사상이나 인생의 슬픈한 면을 피해 조용한 면을 희극적 필치를 가해 다루었을 수 있게된다.우선 Mansfield Park 의 기개를 살피고 작가 Austen의 취의 특징을 알아 보기로한다

× × ×

Mansfield Park에 거주하는 Sir Thomas Bertram 과 그의 처 Maria Ward에게는 Tom과 Edmund 아들 두 형제와 Maria, Julia 딸들이 있어 이들의 외이모 들중 하나는 기사에 게 시집을 가고 또 하나는 미 지체 가 낮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Maria Ward는 시집 잘간 덕택으로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막내인 Miss. Frances는 조화되지 않는 불행한 결혼을 하여 아이들은 많아지고 생활은 곤난해지고 주 먹이와는 10여년간 결교되다 시피 하였다. 그때도 형제의 인연이란 끊을 수 없는 것이어서 Miss Frances의 곤경을 구원하는 반은 인도주의적이고 반은 감상적인이유로 Mrs. Price(Miss Frances)의 10세된 Fanny가 Mansfield Park에 와서 살게된다. 그러므로서 Mrs. Price의 부양을 덜 다는 이유도 있고 Fanny는 잘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에 성장케 한다는 취지보다 New. Para 혈살보에 인된 Fanny의 비애와 고독을 말할수 없다. 그리고는 차차로 환경에 익숙해진다. Sorridi한 Portsmouth의 시민적 환경에서 질서정연한 Mansfield Park의 귀족적환경에 차차 적응해 나가게 된다 Sir. Thomas의 둘째 아들인 Edmund의 친절한 교도로 Fanny의 성세하고 파민한 마음은 그에게 경근된다

Fanny가 15세되는 해 외이모의 남편이 죽고 Sir. Thomas의 장기여행이 일어난다.

그리고 Mary Crawford와 Henry Crawford 오누이의 출현이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차라 서로 왕래가 있자보니 Henry와 Julia가 접근,또 Mary와 Edmund가 접근된다. Edmund의 Mary에대한 緣情과 執着은 Fanny의 가슴에 銳痛의 불꽃을 이킨다. 彼瓜期의 Fanny에겐 假時不顧하는 理解와 親切로서 對種주는 Edmund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가슴 一隅에 戀人으로서 자리잡는 것이다. 더군다나 Fanny는 불쾌하였을 때 섬세한 石鏡들에 둔중한 Edmund가 아니었던가. Edmund 조차 이 事件을 興幽로서 대수갔별 Fanny에 對한 인間의 情의 衝突을 보게 된것이다. Edmund와 Fanny에 對한 짙은 思慮는 여기에 교치지 아니한다. 그들의 知人인 Mr. Rushworth의 住宅이 있는 Sotherton으로 모두가 旅行하기를 招待받았을 때 周圍의 反對를 물리치고 Edmund의 强勸한 主張으로 Fanny도 參與하게 되었다.

Mansfield Park에, 匿遊復동이 Crawford 오누이가 導入되었고,또 後에 Mr. Rushworth와 Mr.John Jates가 導入되어 事件은 展開되어 진다. 이 青春男女는 만폐,與分平聲한 生活을 營爲하고있다. 그러나보니 질음의 情熱을 發散시킬 方途를 應接室內의 對話나, 旅行이나 遊園의 소요, 讀書, 숲마로반으로 滿足시킬 수 없었다. 그래 이들은 아마추어」劇場을 세운다, 脚本을 選擇한다, 出役이다. 이에 환갑한 反對思想을 들고 나섰 사람은 Edmund이다. 家長이 出席한 틈에 長男 Tom보다는 Edmund가 오히려 家內의 談言標이 强하다. Rehearysal을 하는바면 男女間係의 어느程度의 親密을 招來하게 될것과 조그마한 마당이라 外部에 나쁜 소문이 번져나갈 우려있다. 또 그들의 家長으로 말하면, 근엄·엄정하기 無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음의 盲目的인 熱走는 어쩌하랴, 結局 Edmund까지 演劇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運命에 놓인다. 演劇을 구실로 結緣이 서로 만나게되니 男女間에 來引力發生 제주가 없다. Henry Crawford는 自己에 상당한 自身을 가지고있다. 勿論 그의 財産이 明說圓連한 虛妄을 보아 自己滿足을 가진다하여 흠 잡을 수 없다. Henry Crawford는 이 演劇을 거화로 Julia, Maria 들을 등시에 나꾼다. Maria와 親密度가 강해지자 일이나는 Julia의 섭섭과 悲哀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이에게는 행복과 어떤이에게는 비애를 주는 Mansfield Park의 생활에 다시 변화가 생겼으니 Sir Thomas의 참으로 오랫만 후의 귀국 이다. 저간의 여행에 대한 교환이 있는 후 그는 한국전을 발견하고 경악과 분노의 정에 겨진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Maria을 비롯한 젊은 가슴의 실망은 형언 할수 없었다. 그리고는 Maria와 Mr Rushworth의 결혼이 성립되나 Henry는 본래 위인이 그런지라. 초일은 생각치 않고 잠시 향락에 본것이었다. Maria는 Henry의 그주위의 미혼처인 태도와 Mansfield Park로 부터의 장기간의 부재로 체념과 분노가 섞인 심정으로 본래부터 정성스러운 주종자인 Mr. Rushworth와 애정도 없는 결혼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Maria가 결혼하여 Sotherton으로 가게되고, 이때 둔성 t. Julia 도 따라가게 되어, Mansfield Park 에서의 Fanny의 지위는 할상된다. 귀국주 Sir·Thomas는 Fanny가 하나의 여인으로 성숙했음을 보았고 그녀의 순결 무구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Fanny에게 다른 면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시기가 되었다. Fanny가 가장 아끼는 동생 서신교한도 찾아 동생 William의 귀국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일찍이 해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서 Mansfield Park에 다녀나게 되었다. Fanny의 기쁨은 절정에 달한다. 이들 축하하는행사가 Sir Thomas의 집은 사의 친절로서 베풀어졌다. Fanny가 그렇게도가지고 싶었던 무도회이다. Edmund는 이기회서 Fanny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선물을 하므로서 Fanny를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든다. 오누이의 재주와 연락의 무도회가 끝난지 의 무기력과 고독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슬프기 보담 Fanny 에게는 놀랍고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으니 Henry의 그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어떠캐서는 Fanny를 평범한 여인으로 알아온 Henry는 비로서 Fanny의 아름다움에 처음에는 시시히 배로되어 곧 열렬히 사랑해 버린다. 그러나 이는 Fanny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Fanny는 Henry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의 지나친 자신과 그의 누이 Mary가 Edmund의 교제관계를 통해 Mary가 Edmund에게 퍼지는 피로움 (Edmund는 성직자가 될 작정이었는데 Henry는 성직자를 얕게 취급한다. 결혼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인으로 부터의 이런 편견은 그들 피롭히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 Maria와 Julia를 일시적 희롱의 대상물로 취급 한다고의 부박한 성품을 바가 하고있었다 이런 Henry에 대한 평소의 원망과 혐오의 정은 Fanny와 Henry의 운명의 전개를 차지시키는데 중보 했다 Fanny 의 이러한 태도는 Sir. Thomas를 비롯한 가족일동의 빈축을 사게된다. 사람됨이나 분별이나 재산정도로 보아 무엇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Henry 가 아니었던가.

Fanny는 사면초가경에 빠졌다. Fanny의 곤욕 당황을 때가하는 것은 Henry의 공공연한 애정고백과 그의 누이 Mary가 Fanny에게 거답을 절이으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곤욕은 Fanny의 취약한 마음의 부담이 된것은 Henry 바로 그사람의 주선으로 Fanny의 사랑하는 동생 William의 승진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Henry는 백방으로 Fanny의 환심을 사려 하였던 것이다.

William이 휴가를 얻게되어 Portsmouth로 귀향하게 된다. 이들 기회를 Sir Thomas는 Fanny로 하여금 그를 동반케하여 수년만에 Fanny를 본가로 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Sir·Thomas의 훈중대는 Fanny에게 성심성의를 주어 쏟붙었는 내로운 생에 입할수있는 기간을 설정하라 하는 것이었다. Portsmouth의 생활과 어떠까지 상상해 온 Mansfield Park의 생활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을 보는 안목을 새로이 하고 Henry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가족과 상로 오랫만의 해후는 Fanny의 기대에상회 로 "Sordidlife"에 대한 실망과 가족의 Fanny에 대한 냉담으로 인한 실망만 그녀의 가슴에 부어주었다. 그녀의 부모는 탐욕 심이 조악불친절하고 게으르고 체신머리없고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보고 그중 Fanny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14세난 동생 Susan 뿐이었다 소조한 생활을 근근히 보내는 방법은 Susan에게 배울 점이 있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불행한 Fanny의 가슴에 반월의 이기고 그 Fanny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번 Fanny의 방문은 Fanny 의 그리고 Edmund 와 Mary간에 일어난한 정조의 시험이었다 Fanny 는 Edmund 와 Mary 간의 교제 관계를 통해 Mary가 Edmund에게 퍼지는 피로움 (Edmund는 성직자가 될 작정이었는데 Henry는 성직자를 얕게 취급한다. 결혼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인으로 부터의 이런 편견은 그들 피롭히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 Maria와 Julia를 일시적 희롱의 대상물로 취급 한다고의 부박한 성품을 바가 하고있었다 이런 Henry에 대한 평소의 원망과 혐오의 정은 Fanny와 Henry의 운명의 전개를 차지시키는데 중보 했다 Fanny 의 이러한 태도는 Sir. Thomas를 비롯한 가족일동의 빈축을 사게된다. 사람됨이나 분별이나 재산정도로 보아 무엇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Henry 가 아니었던가.

Fanny는 사면초가경에 빠졌다. Fanny의 곤욕 당황을 때가하는 것은 Henry의 공공연한 애정고백과 그의 누이 Mary가 Fanny에게 거답을 절이으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곤욕은 Fanny의 취약한 마음의 부담이 된것은 Henry 바로 그사람의 주선으로 Fanny의 사랑하는 동생 William의 승진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Henry는 백방으로 Fanny의 환심을 사려 하였던 것이다.

William이 휴가를 얻게되어 Portsmouth로 귀향하게 된다. 이들 기회를 Sir Thomas는 Fanny로 하여금 그를 동반케하여 수년만에 Fanny를 본가로 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Sir·Thomas의 훈중대는 Fanny에게 성심성의를 주어 쏟붙었는 내로운 생에 입할수있는 기간을 설정하라 하는 것이었다. Portsmouth의 생활과 어떠까지 상상해 온 Mansfield Park의 생활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을 보는 안목을 새로이 하고 Henry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가족과 상로 오랫만의 해후는 F. anny의 기대에상회 로 "Sordidlife"에 대한 실망과 가족의 Fanny에 대한 냉담으로 인한 실망만 그녀의 가슴에 부어주었다. 그녀의 부모는 탐욕심이 조악불친절하고 게으르고 체신머리없고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보고 그중 Fanny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14세난 동생 Susan 뿐이었다 소조한 생활을 근근히 보내는 방법은 Susan에게 배울 점이 있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불행한 Fanny의 가슴에 반월의 이기고 그 Fanny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번 Fanny의 방문은 Fanny 의 그리고 Edmund 와 Mary간에 일어난한 정조의 시험이었다 Fanny 는 Edmund 와 Mary 간의 교제 관계를 통해 Mary가 Edmund에게 퍼지는 피로움 (Edmund는 성직자가 될 작정이었는데 Henry는 성직자를 얕게 취급한다. 결혼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인으로 부터의 이런 편견은 그들 피롭히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 Maria와 Julia를 일시적 희롱의 대상물로 취급 한다고의 부박한 성품을 바가 하고있었다 이런 Henry에 대한 평소의 원망과 혐오의 정은 Fanny와 Henry의 운명의 전개를 차지시키는데 중보 했다 Fanny 의 이러한 태도는 Sir. Thomas를 비롯한 가족일동의 빈축을 사게된다. 사람됨이나 분별이나 재산정도로 보아 무엇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Henry 가 아니었던가.

Fanny는 사면초가경에 빠졌다. Fanny의 곤욕 당황을 때가하는 것은 Henry의 공공연한 애정고백과 그의 누이 Mary가 Fanny에게 거답을 절이으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곤욕은 Fanny의 취약한 마음의 부담이 된것은 Henry 바로 그사람의 주선으로 Fanny의 사랑하는 동생 William의 승진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Henry는 백방으로 Fanny의 환심을 사려 하였던 것이다.

William

프랑소와 사강의 작품세계

그의 성공작과 실패작 [上]

편 집 실

<편집자> 「커티스·케이트」는 Atlantic誌의 유일 기국장으로 사강의 네번째작품「Aimez vous Brahms」가 나오자 금시 불란서에서 2篇部가 팔린 그 원인과 작가의 背景에 對한 상세한 解明을 하고있다.

× ×

「투락소와 사강에 관한 이야기는 흔히 화제거리가 되어 있다.「사강」의 이야기는 불우한 소녀가 하루아침에 온 세상을 놀라게 한 「신데레라」의 동화같은 현상이다.만일 전자와 다른점이 있다면 「사강」은 먼저 쓰라린 고초를 겪지 않았다는것이다.

여간 우리는「사강」의 문학적인 성장과정에서 최근 그의 작품에 투영이 나타나고 있는 비극적이며 위축된 전개에 관하여 그 경신적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강」의 소녀시절에는 여성잡지 「마리 끄레르」에 익명으로 기고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나이어린 「사강」이 「엘르프」산중에 있는 시골에서 개와 함께 즐겁게 뛰놀거나 「이온」에 있는 자기 집 「아파트」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면 모습을 볼 수 있다.

「사강」의 부친은 매우 유능한 실업가로「무아세」하고 불렸으며 모친은 환고한「부르죠아」출신으로 말의 미리를 맡아 느리도록 하고 학교에 갈때면 언제나 무릎꺼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겨 보냈다.

「사강」은 몹시 민감한 심경 때문에 친구들과의 첫번 교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보다.그의 동급생들은 미리채를 잡아 당기고 기다란 양말을 놀려댔다.더구나「사강」을 괴롭혔던 것은 심경에 있어서는 그가 인재나 반의 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부터 인기가 좋지 못한 신경의 충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시절이 먼 옛기억이 되어 버린 오늘에 있어서 「사강」은 아직 탄슬을 지울 필요는 없다.

"Toujours Première et ridicule"

——「언제나 첫째이며 또한 괴짜」

「사강」의 양친은 그차세대전후 「파리」로 이사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강」의 내부에 막도고 있던 반항적 기세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사강」은 머리칼을 짧게 치 내리고 발목 까지 미치 오지않는 양말을 신고 다녔다.뿐만셩상 나는 웨부터는 덮개 연기 자학한 속에서 「자즈」의 요란한 음률이 소동하고 사람들이 복작거리는 지하실 술집 「생·제르망·데·부레」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나가는 것 조차 싫어 계시 수업을 빼먹고는 「파리」시가를 쏘다니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푸루스트」나「스탕달」의 작품을 애독하였으며 점차 「개류」의 작품을 애독하게되었다. 분명 아니라 「사강」은 반강상적이며 반추상적인 단편과 시를 습작했다.

상기한 줄거리는 감추어진 인간성분의 내면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사실의 부분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사강」이 나이에 비해 조숙했다는 점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그의 오빠와 언니는 사강보다 十년이나 연장이기 때문에 사강의 어린 시절에도 매개 고통과 교제를 했다 그의 고독감은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어 겉으로 빙적인 수집음은 것선에 투영한 상처를 주어 오늘날 까지도 그상처가 사라 지지 않았다.

남조각을 사려고 집 밖을 나서는 것이 가슴에 생긴 고민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올때면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택시를 타고 오곤 하였다. 택시 요금을 빌기위해서는 학교 친구들의 숙제를 맡아서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 바깥 세계에대한 공포를 부모한테 조차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스팡 마두레」의 「스토프카」와 「자구아르」와의 연애는 어쩌면 제 부서 거리 잡고 있던 병적인 수집음을 이겨보려는 사강의 집사적인 노력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사강」의 위축된 심적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은 그의 오빠였다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이 처세하는 그는 경자 놀놀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되자 사교계에 드나들면서 「돈·란」의 혁을 훌륭하게 해냈다 분명 그는 「사강」 년대에서 자랑과 영웅의 대상으로 되었던것이다 그러하여 기지와 활동력을 겸유한 인간의 본보기로 올려보였던 것이다

최근 「사강」의 여러가지 행동과 「파리」에서 일취한 과거 五년간의 무궤도하고 난잡한 생활은 「사강」의 오빠 마냥 아무런 주려움 없이 당돌하게 인생을 경복할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 주기 위한 뒤 갖은 시도하고 불수있을 것이다 「아카데미」한 교육에 환멸을 느낀나머지 무턱대서 학사 시험에 낙제한 자신의 취지와 오빠의 거침 없는 성공을 비교해 볼때 「사강」의 시기심은 소심에 집념하도록 자신을 몰아넣었던 것이다

여하간 오빠의 그림자는 「술좋아 이 안녕」에 나오는 아버지의 인물속에서 투영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고급「바」를 쏘다니며 전람 마셔댔다. 그러다가 술먹시는 제미에도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면서 부터 술주정꾼 그들은 「스토프카」에 돌아와고는 서로 돌어 빈기나 하려는 듯이 「파리」의 가로를 난폭하게 질주했다 .

이처럼 남장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돌쇄된 소설을 「사강」이 써낸단 한 시간을 빠넣수 있었다고 하는것은 그의재질을 충분히 발휘 주는것이라 이렇게보면 그동안 「사강」의 정력은 자신을 파괴시키는데에 모두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돌쇄반소설을 집필하는 동안 많은 고심을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은 2년간에 걸쳐서 모아온 단편적인 구상과 5주일간의 집필로 「어떤미소」를 완성했다

소설의 「뷰리장」소녀와 중년 남자와의 깊은 사랑 이야기는 첫번소설과 비교해볼때 어떤 진전을 보인것 만은 사실이다 구상에 있어서도 mau vais Coups (Roder Vailland)에서 모방했으리라 생각되는 「술좋아이 안녕」의 이질은 구상보다는 인공적인 냄새가 덜 풍기고 더욱 자연 스럽다.또 한가지 이소설에는 「난나」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리는것 같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격렬한 사건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기 그와 같은 형식은 「쥬리아드」 편집장이 그의 첫번 소설에서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쥬리안느」의 소설은 백홀린「사강」의 방향과는 전혀 그 심경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 어린 작자의 성세중 비한산에 전환기가 드리 닥쳤다.

「사강」의 출세된 소설이 나오자 신문 잡보란을 통하여 25회 가량을 혹평받게 되었다 이와 보조를 마추어서 단 일년간에 「사강」의 인생사를 5번만 「포랑」으로 게하되었다 그러나 「사강」은 연전에 출인갖 문학수업의 장난을 타개하고 자신의 첫번 제능은 번덕스런 대중앞에 펼쳐 나타내 보이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번개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평론가들의 입을 다물게 했으며 혼히 소설가 들을 중지토록 이 넣어서 작품을 방치게 하는 계경적인 위협을 피해 나갔다.

「사강」은 知的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싸르트르」를 爲하여 일마동안 이번 週間誌에 財政的인 원조를 하여 주므로서 自尊을 위로했다. 그러나 圓志만한한 言論계에 從事하게는 생각은「사강」을 유혹하기도 했지만 또한 同時에 그의 마음을 무렵게 하였으나 그럼에 아무런 계획도 서있지 않았다.

最近「사강」은 「마리 끄레르」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文學이란 眞摯하게 대하여야 할것이지 희롱할 상대가 못되는 것이다.」

「사강」은 아직도 自己가 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사강」自身에게 매우 有用한이 格言을 實生活에 적용하려는 맞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있다. 오히려「싸르트르」的인 運命을 순순히 實生活에 받아드리기라도 한것 같이「사강」은 무모한 自己 神話의 희생물이되는 自尊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他人이 願하는 그런 사람이 될것이다.」

「사강」은 아직도 계속해서 사랑 발필의 친구와 社會的인 야심가들과 함께 어울려 너겁한 「파리」로부터 高級「나일 클럽」에 이르기 까지 마구 쏘다녀면서 다음 小說의 材料를 이박금에 집기해 주는것이 고작이다.

「사강」의 세세번 소설 「달이가고 해가가면」(Dan UnMois, Dans Un An)이 구상된 것도 이처럼 무계도하고 무책임한 방법으로 이루워 졌던것이다. 사강의 生命이 위태로울 번한 1957年 4月의「스포르 카」事故때 위이어서 出版된 이 小說은 하루사 이「스타」의 修止부를 마련한듯이 보였다.

「사강」은 自己와 가장 친밀한 親友에게 이번에는 옳게한 사람 이야기式의 小說에서 殷皮하여 「스탕달」의 「赤과黑」이나 「싸르트르」의 「自由의 길」같은 觀念的인 小說을 쉬집이 없어보고 싶다고 말했었다.

21세인 이런 작가로 이렇게 담대한 일을 착수 하자면 이에 상당하는 기교(奇巧)한 전상(鎭想)이 갖추어져 있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전지한 대도로 시도해 보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사람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노력은 시작과 함께 백지화하여 버렸고 마침내 남아있는 것이라곤 허구적인 웃기리 뿐으로 삶과 피부와 심장이 없는 백다귀만의 책이 「사강」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이가고 해가가면」은 심혈작임에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강」의 어떤 소설 보다 가장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점에 있어서는 무서할수 없는 작품인 것이다. 작가는 편집장과 자칭 소설가 그리고 현출가등의 주인공들을 통하여 자신의 허무감과 무지를 폭로하는데 가슴 아픈 폐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군상은「사강」의 존경을 받는 지식인들로서「사강」의 이전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 소설에는 「사강」의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모든 신념을 짤망적으로 짓밟아 없애려는 듯이 문학과 지성에 대한 조소와 무지에 대한 찬사가 들어 차있다.

「문화란 인류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며 남겨진 것이다.」

「백치 만치 확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다.」

「그는 추위에 떨고 서있는 노인이다. 그러나 문학은 그 노인을 조금만치도 친절히 대해주지 않는다.」

이 소설은 시종일관 마치 작가자신이 절멸한 환경과 제능의 빈곤속에서 몸부림 이라도 치고 있듯이 과장감의 억취가 걸개 내렸기고 있다.

「투락소와 사강」의 과오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무자비하리 만치 적나나하게 가기 자신을 들어내는 사강의 정직성 에는 경의를 표하여야할것이다. (속)(Atlantic지 에서)

17세기 전후의 영국의 연극 경향

—영국의 Elizabeth조 까지를 중심하여—

김 형 필

무용이나 영화가 없던 시대에 연극이 현시적으로나마 있었다는 것은 연극이 생활감정의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때문이다. 연극도 무용이나 영화처럼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연극은 인물의 심격, 사건의 진전등 문에 내용이 명진적 줄조(律調)로 전개되므로 시적이며 舞的이다. 그러므로 연극에는 모든 문학이 조화되어 입체적으로 감각을 충동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연극의 기원은 태고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古代 Greece에서는 비극 희극 사튜러스의 세부문으로 세한되어 국가에서 년중 일정한 기간내에 상연을 하였다. 비극이라고 슬픈것은 아니었고 희극이라고 웃으운 것도 아니었으며 사튜러스는 경쾌의 형태로서 상연되었다.

영국에서는 Shakespeare 이전에는 主로 경향극(傾向劇)으로서 무엇인가의 이용을 위한 정강에서 도덕, 종교 혹은 교파(敎化) 정치등을 내포하였다고 할수있다. 이러한 경향극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그당시 문화수준이 낮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된다. 그러나까 Shakespeare이전 즉 Elizabeth이전 Chaucer가 나오기 전은 1066년 佛蘭西norman의 영주인 william의 침입이래 norman-french와 하틴어 사용으로 인하여 셱꼰문학은 침체되고 몇몇사람이 기록한 Chronicle이나 작자미상인「尼爾의 戒律」(The rule of Ancnorresses)이 있을뿐이었다. 그러다가 14세기 후반 Chaucer의 출현은 국어(영어)의 독립을 가져왔다.

William Langland간은 민중시인 John Gower등으로 영문학은 고개를 들었고 15세기에 들어와 화란의 구주텐베르그의 인쇄술을 배워온 William caxton이 1476년최초로 인쇄소를 개시하여 불란서로된 책을 대량 번역할때 철자와 어법을 Chaucer의 용어를 표준으로 삼았기때문 Chaucer의 作品에 쓰인 영어가 곧 표준어가 되어 영어의 기초를 닦았으며 16세기가 닥아오도록 태반의 시인 작가들이 Chaucer를 모방했으므로 문예창작은 결작되었어도 영어는 확립되었던것이다. 이런 것들이 Elizabeth시대에 와서 연극으로 완숙되었기때문에 연극이 독이 Elizabeth朝에 비한간 만개전성처럼 느끼게도 된다.

Elizabeth朝의 극을 말하기전에 영국의 극이 발달한 경로를 훑어보면 체일치을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것으로 12세기 경에 생긴 church drama이다. 이것은 민중사이에 생긴 교회극 (敎會劇)으로서 교회에서 슬러가 청중을 끌기위하여 대화를 단상위에서 펼친것이었는데 청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원의 大門앞에 무대같이 하고 연극을 했다. 13세기에는 이것을 俗人이 하였고 14세기에는 시내의 광장으로 무대가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주로 신구약성서에 취한것이었다. 이것을 miracle play (奇蹟劇)이라고 부른다. 14세기 후반기에 「인간성」선형 불사들을 취급하여 도덕을 고취하는 교훈극인 도덕극 (morality play)이라는 새로운 극이 생겼다.이러한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여후으로 갈때한 기분을 주는 幕間극 (間극 혹은 中간극)이 발생되었다. 위린 극을 중에는 점점 희극적인이 덧붙어 희극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喜悲劇은 희부로부터 밀려온 문예부흥의 기운에 입은 영향이크다. 대개가 그렇듯이 극도 라틴의 고전극에서 출발되었다. Terence의 희극 Seneca의 비극등이 대학에서 또는 유식계급에게 라틴말로 상연되었다. 이때는 벌써 Saxon의 사용이 허가되어 영국의 권력이 장악됨을 때였다. 그리고 문화수준도 국부적으로 상렬해지고 있었다.

그러는중 London 초유의 공개극장 The Theatre가 1576년에 개관되었다. 이때가 Elizabeth초의 극이 시작되다고 할수있다. 이시대는 이리저리에서 Renaissance의 여파가 들어오었고 세의로부터 신기한것이 도래하였고 경제없는 사회 국내의 사상은 전쟁적인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성취하였다. 이런 대중적인 시대에나온

John Lyly의 작품은 언어가 세련되었고 고상하였다. 그의 화려한 Euphuism은 국에 나타났으며 Robert Greene은 영국 자신의 것을 주제로한 James IV는 浪漫劇으로서의 절작중이다 진정한 희미로 Shakespeare의 선구자인 Christopher marlowe는 거대한 史劇이나 비극을 만들었다.

marlowe는 30세에 생명을 잃었으나 Dr Faustus 같은 作品은 그가 Romance에서 벗어나 정신적 전쟁성과 심미성, 안일한 것이 사색으로 세다른 면이 있었다. 이들 극작가는 대학출신으로 藝美 本末의 특색에 입각한 순수극을 형성시켰다

위이어 나온 shakespeare는 오늘날 연극의 기반을 세우기전까지 몇몇 작가들로부터 많은 모방을 하였다. 특히 Elizabeth 시대의 산문문학이 모사의 산만 화려가 서투르고 구성에 결핍이 많아 그것은 극작가에게 줄거리를 제공해 주는것 뿐이었다. Thomas lodge의 敎訓의 이야기 Rasadynde 는 세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에 줄거리를 제공했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그의 선구자 marlowe의 작품을 모방한것이었보단 Venus and Adonis는 Hero와 Leander에 Richard 2世와 Richard 3世는 Edwdrd 2世에 의거하였고 The merchant of Venice는 The Jew of malta 로부터 색출된것처럼 보인다. 나전러와 산출정도 의 원한을 돌어주는 것이다.

Vega의 작품은 그 시대에는 말맞았지만 오늘날에 화서는 공명할수 없는것이 대한 그 시대에 서 「세르반베스」의 "Dan Quijote"처럼 불멸의 작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하간 그당시 그의 인기는 아무도 강히 겪지 못했다. 그가 지나갈때는 왕도 수레를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였다고 한다.

「세르반베스」는 그의 불멸의 작품으로 인기는 있었으나 성질이 괴벽하여 친구들에게 호감을 사지못하였고 늘 가난에 조달됐지는 Lope는 누구에게거나 호평을 받었고 또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시대의 습관,생활양식등을 알려면 Lope의 작품을 읽는것이 아주 적합하다. 그가 1635년에 세상을 떠났을때 전 유럽사람이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서반아에서는 구릿간이나 모든 상가가 철시를 하고 슬픔에 잠겼었다.

그의 주요작품 : La Moza de Cártro. (Girl of Pitcher.)
La Arcadia.La Dorotea.etc

—⊙—

Cervantes (1547~1616)

서반아 작가의 창작파고를 리워지는 불멸의작가「세르반베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일생을 가난과 불우속에 보냈다. 겉보기에 Lepanto해전에 참가하여 전쟁을 본적 이외지리 돌아다니다 겨우 벼슬 하나를 얻었으나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이기에서 거 불멸의 대작 "Don Quijote"를 쓴 계획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실질이 좀 전개하여(세 육 천성은 부드럽지만) 아무에게나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못했던것 같다. 그는 또한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자기의 울분을 폭발시킬 목적으로 "Don Quijote"라는 풍자소설을 써서 세상을 비꼬았다.

불멸의 대작 "Don Quijote"는 심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어 그 이름은 실제인물로서 우리를 뇌리에 박혀있다.

줄거리는 어느 시골 부유한 지주가 기사책을 너무 읽다가 머리가 돌아서 자기도 한번 기사가 되보겠다고 결심하게되어 자기 소작인 Sancho Panza를 데리고 모험 행각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

슬픈 표정을 짓고 바싹 마른 몸, 그러나 늘 힘있게 창을 쥐고 있는 Don Quijote의 모습은 영혼, 즉 정신을 대표한다.

부식하고 먹는것밖에 모르며 뚱뚱한 Sancho Panza는 물질을 대표한다.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 두개가 교차되는데 생겨지는 모순을 작자는 풍자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Don Quijote의 미친 행동과 어처구니 없는 짓은 우리들의 웃음을 자아내지만 웃고 넘뛰에는 울고 싶은 충동도 받는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들 주위에는 돈·키호테같은 무모한 것을 하여 제가방신하는 사람들을 허다히 본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하나의 산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작품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사람들에 의해 애독되고있는것이다. Lope de Vega의 작품은 그당시는 더 인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와서는 그리 환영을 못 받는것은 그의 작품이 그시대에 발맞았고 또 서반아문예계는 환영을 받었지만 세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는 공명할수없는 요소가 내포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Don Quijote"의 위대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소년은 보고 청년은 읽고 중년은 이해하며 노년은 탄식한다." 이것은 Don Quijote를 읽고 난 어느시인의 부르짖음이다. Don Quijote는 인류가 사는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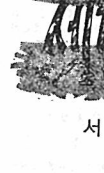
「세르반베스」는 이런 불멸의 작품을 쓰면서도 매우 불행하게 살었는데 죽은 후에도 그의 장례식은 형편없이 초라하였다 고 한다.

그의 대표작 "Don Quijote"
"La Numancia"

서 반 아 편 1

장 선 영

Lope de Vega (1562-1635)



1562년 11월에탄생한 서반아 희곡의 거인 그는1635년에 세상을 떠날때지 무려 천랄재여력의 작품을 써내어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이천재는 네살때 이미 동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다섯살때는 다른애들이 겨우 모국어나 읽을정도인데 그 어려운 라틴어를 읽었으며, 열한살때는 벌써한 희곡도 썼다고 한다.

젊어서는 「Vila」 주교(主敎)의 비서노릇도 하였고 군인으로 나가서 무장도 맡하였다.

※ 질인2세가 보낸 무적함대에 참가하여 영국과 싸워 무찌의 패배당하는등 그 가신 비참한 고난을 당하여 그 경험이 그의 문학에 많이 반영되었다.

「세르반베스」도 일찌기 그의 천재성을 깔라하였기니와 그는 많시 수많은 작품을 써서 전유럽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그는 그 시대의 민중들이 나갈 방향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즉 역시질은 불전재후에 반항하여 국가의 상징인 왕에게 충성을 하라는것이다. 그당시 중세기 암흑시대가 물러가고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전제국가의 세력이 대동하려는 때였다. 이느작품의 내용을 훑어보아도 대개 비슷한데 그중의 대표작인 "Alcadia"를 보면 이런 역시이 무슨일로 고함을 벼났는데 그 지방의 영주가 그의 아내에게 유혹을 하나 이에 불복하므로 영주는 권력으로 남치해가고 역시이 돌아와 영주에게 반항 하다가 도리어 불변을 당하여 할수있이 서울로 가서 왕에게 호소하니 왕이 친히 가서 그 영주에게 벌을주고 역시

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Vega의 작품은 그 시대에는 말맞었지만 오늘날에 화서는 공명할수 없는것이 대한 그 시대에 서 「세르반베스」의 "Dan Quijote"처럼 불멸의 작품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하간 그당시 그의 인기는 아무도 강히 겪지 못했다. 그가 지나갈때는 왕도 수레를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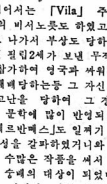
「세르반베스」는 그의 불멸의 작품으로 인기는 있었으나 성질이 괴벽하여 친구들에게 호감을 사지못하였고 늘 가난에 조달됐지는 Lope는 누구에게거나 호평을 받었고 또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시대의 습관,생활양식등을 알려면 Lope의 작품을 읽는것이 아주 적합하다. 그가 1635년에 세상을 떠났을때 전 유럽사람이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서반아에서는 구릿간이나 모든 상가가 철시를 하고 슬픔에 잠겼었다.

그의 주요작품 : La Moza de Cártro. (Girl of Pitcher.)
La Arcadia.La Dorotea.etc

—⊙—

Cervantes (1547~1616)



서반아 작가의창작파고를 리워지는 불멸의작가「세르반베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일생을 가난과 불우속에 보냈다. 겉보기에 Lepanto해전에 참가하여 전쟁을 본적 이외지리 돌아다니다 겨우 벼슬 하나를 얻었으나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이기에서 거 불멸의 대작 "Don Quijote"를 쓴 계획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실질이 좀 전개하여(세 육 천성은 부드럽지만) 아무에게나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못했던것 같다. 그는 또한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자기의 울분을 폭발시킬 목적으로 "Don Quijote"라는 풍자소설을 써서 세상을 비꼬았다.

불멸의 대작 "Don Quijote"는 심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어 그 이름은 실제인물로서 우리를 뇌리에 박혀있다.

줄거리는 어느 시골 부유한 지주가 기사책을 너무 읽다가 머리가 돌아서 자기도 한번 기사가 되보겠다고 결심하게되어 자기 소작인 Sancho Panza를 데리고 모험 행각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

슬픈 표정을 짓고 바싹 마른 몸, 그러나 늘 힘있게 창을 쥐고 있는 Don Quijote의 모습은 영혼, 즉 정신을 대표한다.

부식하고 먹는것밖에 모르며 뚱뚱한 Sancho Panza는 물질을 대표한다.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 두개가 교차되는데 생겨지는 모순을 작자는 풍자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Don Quijote의 미친 행동과 어처구니 없는 짓은 우리들의 웃음을 자아내지만 웃고 넘뛰에는 울고 싶은 충동도 받는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들 주위에는 돈·키호테같은 무모한 것을 하여 제가방신하는 사람들을 허다히 본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하나의 산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작품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사람들에 의해 애독되고있는것이다. Lope de Vega의 작품은 그당시는 더 인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와서는 그리 환영을 못 받는것은 그의 작품이 그시대에 발맞았고 또 서반아문예계는 환영을 받었지만 세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는 공명할수없는 요소가 내포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Don Quijote"의 위대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소년은 보고 청년은 읽고 중년은 이해하며 노년은 탄식한다." 이것은 Don Quijote를 읽고 난 어느시인의 부르짖음이다. Don Quijote는 인류가 사는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세르반베스」는 이런 불멸의 작품을 쓰면서도 매우 불행하게 살었는데 죽은 후에도 그의 장례식은 형편없이 초라하였다 고 한다.

그의 대표작 "Don Quijote"
"La Numancia"

北歐神話 (Northern Mythology) ⑤

The Elves

Edda에는 신들보다는 좀 낮지만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듯하나의 class of beings에 대하여 쓰여 있다. 이것은Elves 라고불리워 지는 것으로 Elves of Light와 Elves of Night 가 있다.

Elves of Light 는 한편 The whight spirits 로서 아름답고 태양보다도 더 한층 찬란하며 섬세하고 투명한 천으로 만든 옷을입고 있다.

Light 를 사랑하는 이들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며 보통때 보고 사랑스러운 이웃이어들과같은 모습을 하고있다.

오정들은 태양의 신 Freyr 의 영토인 Alfheim 에 살며 태양의 주변에서 Light 와 더불어 향상 뛰고 논다

그러나 black spirits 인 Elves of Night 는 아주 다른 퍼를보이려는 갈색피부를 지닌 추하고 보가 긴 난쟁이 들이다.

그들은 햇빛을 가장 무서워 하여 밤에만 나타난다. 탑일빛에 이그들 몸에 조금이라도 비치기만 하면 즉시 물로 변하고 만다

그들의 언어는 the echo of solitudes 이고 거처는 암속 동굴이나 절벽틈 바구니이다.

그 무서운 멸망의 날은 예고 나타난듯 차차 닥아왔다. 처음에 보통 겨울의 세곱이나 되는 긴 겨울이 붙어 닥쳤다. 그 겨울동안 하늘의 태 구석에서 눈이나리고 서리는 혹심하였으며 바람은 살을 에이는듯 하여 정말 지주 스러운 날씨였다. 해양은 한번도 햇빛을 보이지못하였다. 이렇게 무서운 긴 겨울이 지나 갔는가 하면 끝은 여름하나 오지 않고 다시 죽 같은 긴 겨울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겨울과 불화는 온 우주를 뒤덮고말았다.

지구 자체는 세 음밭이를 떠났으며 하늘은 조각 조각이나고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떨 갔다. 오직 솔개미만이 물을 피덕이며 쥐눌고 늑대 Fenris는 쇠사슬을 끊고Midgard의 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동을 쳤다. 그리고 사슬에서 벗어난 Loki는 신들의 계에 가담하였다.

인명재천된 속에 Muspelheim의 자식들은 Surtur의 지휘아래 앞뒤로 달리며 불꽃을 튀겨 불을 켰었다. 마침내 그들은 무지개 다리 Bifrost로 밀을 달리 회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Odin의 아들 Vidar가 뒤이 나와 아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Fenris를 죽였다. Thor는 Midgard Serpent를 무찔르므로써 멸살을 얻었으나 죽어가며 그에게 피보는 원한의 독기리에게 숨이 막혀 고말 죽고말았다. Loki와 He-imdal 은 서로 싸워 나중에는 둘다 죽었다.이리하여 신들과 그의 적은 전쟁에서 하나와나 쓸어졌다. Freyr 죽은 Surtur는 온지구에 진을불놓아 우주는 타버리고말았다. 드디어 태양은 초리지구마저 Ocean속으로 갈아 앉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시갈아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후 Alfadur (the Almighty)는 새 하늘을 이룩하고 땅을 바닷속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온지구가 일을하기시 돌보지 않더라도 자원이 열매를 맺은 들판으로 가득차게 했다. 막파 비참은 이제 살아지고 신들과 인간이 함께 평화하게 살게 되었다.

Runic 문자

Denmark나Norway나 Sweden 을 여행하노라면 여러가지 모양의 커다란 돌에 이상한 작자기 모양의 글자가 새겨 있는것이 연개 눈에 띄일 것이다. 이 글자는 Runic letters로서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Runic letters 는 거의 비슷 비슷한 작대기 모양의 글을 일기설기 늘어 놓아 글자를 이 룬다.

이러한 작은 작대기는 일찌기 북방민족간에 미개에 일어날 일을 예시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작대기를 돈들어 쉬은 다음 그 변화된 모양에서 미래의 사건을 점쳤던 것이다.

Runic 문자는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주요 이 문자는 Magical purpose에 사용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그 문자를 the bitter runes 라 불러 적대게 여러가지 해를가져다 줄 주문(咒文) 내지는 불행을해양할기 위하여 쓰여 졌다.또 어떤때는 작자 자신 혹은 영웅들 하여 사상을 최독하는때도 사용되었다

그후 Runic 문자는 흔히 비문에 많이 쓰여지게 되어 거의다 비문은 이 문자로 새이게 되었다. 이 Runic 문자는 심상 Norse 의 Gothic 시 방언으로 지금도 Iceland 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Runic 문자는 아주 보잘것 없으며 다만 묘비명에 대부분 쓰일 뿐이다.

Gray's ode"Pescent of Odin" 에는 Runic letters 가 주문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Facing to the nothern clime,
Thrice he traced the Runic rhyme;
Thrice pronounced, in accents dread,
The thrilling verse that wakes the dead,
Till from out the hollow ground
Slowly breathed a sullen sound"

The Skalds

Skalds는 문화 발상시대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 하면 bards and poets 들이다.그들은 역사적 전설의 중 전기자들로서 후세의 문헌학상의 많은 공헌을남겼다. 그들은 전사들의 축제에 입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전으로 시가를 완성하였다. 또한 생존한 영웅이나 죽은 영웅들의 업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전설은 전설을 낳게 하였다. 이 Salds 가 집대성해놓은 것을 Sagas 라 불리워 진다. 그중 대부분이 지금까라지 전이 지며 많은 역사적 자료와 그 당시 사회 상태를 피들어 놓수 있는 훌륭한 문헌을보여 준다.

Iceland

Eddas 와 Sagas는 Iceland에서전해졌다. Carlyle 의 [Heroes and Hero Worship]을 불것 같은 Ice nlad 의을헌근 찾아낸 사람이다. 고대 신화의 모체인 희랍신화와 잡지 비교하여 보면 더욱 흥미있을 것이다.

「리이한 섬나라」Iceland는 지질학자의 말에 의하면 바다밑으로 부터 폭발되어 나왔다 한다. 불모와 음랑의 대지.무수한 세월속에 혹독한 폭풍우로 거칠대로 거칠어진 황야이지만 여전한데는 그런데로 아름답게 비추어 복빛 양을 바라보며놓싸인 산과 온천 그리고 유황천, 무시무시한 화산폭발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꼭 Frost과 Fire의 Chaotic battle-field 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그곳 도처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록한 문학을 찾아냈다.이것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아이 황무지의 해안에는 그대로 초목 지대를 이루고 있다.그곳에서 목축을하고 사랑풀의 자기 할 토의 주단으로 삼아 나간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시종은 아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깊은 사상을 지닌 그들은 또한 음고려로 그들의 사상을 숨긴다. 바다에서 동쪽 솟지 않았을 뿐 아니라 Northern에 의하여 남전되어 져 오랜 세월을 내려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E4)

신들의 멸망내 오다

The Elves of light etc.

丁 雅

<시>

슬픈 역설

張 鳴 史

어느 옛날에 한 기를 내게 있어 고민처럼
뼛기워진 하파의 傷痕을 잊고
도사려 눈물겨운 「아이커 커버스」의 우화
를 거절한채
나는 외려 유성의 궤도를 오르내리며 좋
았다.

그로부터 오랜 역사
부늑마저 목살한 연륜이 기물(抛物)을 그
려가고
기쁘다는게 전설처럼 어느 한 청상(靑孀)
의 한숨과 슬픔처럼 간 푸 끝에 눈물마저 앗
아간 파리한 세월의 유로(流露)를 신(神)
삶아 기대왔도다.
가난한 노래가락을 풀어아껴온
내 피말자(致寧者)의 설음.

놀라워라
오늘 여기 또 하나의 기쁨이 반쟁하여 짐
념 나래처럼 가벼운 부풍 (浮豊)을 자립
삼으니
다시금 그 환희가 밀물되어 부풀어 오고
화사한 그 숨결이 내 허파에 가까 오는데,

오호라, 나는 해 이제 유성이 쉼어
버통치는 날개를 펴고서 솟는가

(E4)

해 빙 기

—다시 교정에서—

강 인 섭

철이 목을 쳐박고 돌리면 동성이에
혼곤히 눈이 먹아 내린다.땅김이 오른다.
갈가마귀가 몇번을 쩍어 보고간 아 내 를
에 여전 뼛삽이 비꼰다 꺾고 절한 피가
골골 풀어 오른 다.

이제는 돌아가자.
옛 집 돌탁의 고목(枯木)앞에 다시 선때
의
그 답은하고 넉넉한 마음 자리로.

그리하여
한 착하고 정정하던 사나이로
다시 돌아 가게 하라

그 철모 아래서
꾸뤼한 하루가 고개를 넘어 길떼
곰파 가는 시간을 잘랐고
나를 멀 돌던 숨결이,
실은 목숨보다 더욱 다급한 이유때문에
그렇게 절망을 강요하던 벽이여.

흰 낫 닮이 새로 우는 억덕에
이내 창창히 벋어 올 아지랑이
뼛 벙아리의 발목에도 피가 도는때
저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는 산악을 보라

바람이 심심한 미소로 사나이의 등을 친
다.
가자. 노를 저어라.
저 창창한 바다가 손 끝에서 출렁인다.

(F4)

아아(亞阿) 대학생 국제학술 대회에 다녀 오다

허 철 부

◇서울서 Honolulu 까지

미 국무성 교육교환계획기금에 의한 미 주립(州立) Hawaii 대학 주최의 제1회 Afro Asian Student leader Seminar 한국대표로 선발 되었다는 미국공보원 서울분화원장 Bernard · J · Lavin에로 부터의 기쁜 통지를 받은것은 구랍(舊臘) 동원(同院)에서 열린 Junto Christmas Party 석상(席上)에서 였다.

나는 이 회때의 X-Mas선물을 흔미(呼珠)하고 즐길 여유조차 없이 여권(旅券) Visa등 수속과 첫 해외여행에 질고한 온갖 준비 때문에 년말과 년시를 즐겨 뛰어 다녀야만 했다.

USIS 당국과 모교 박학장이하,선생님과 성도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면서 16일 김포를 떠난후 동경Handa공항에서 약 4시간 체류(滯留)하고 일로(一路) 곧장이 김주로기만한 바다위를 지무하게 날르고 도달했다. …… Hawaii 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국 날자로 17일, 그곳 날자로 16일 오후 10시경이었다.

Honolulu의 공항에는 미국무성의 Barbara여사와 Hawaii대학 정외과 1학년의 Dick · Havarson군이 마중나와 있었다.

◇에리(銳利)한 질문의 첫 화살

Hawaii대학의 우리들을 위한 숙소까지 달리는 약 50분동안 나는 차속에서 대단히 영리하게 생긴 Dick군으로부터 끊임없는 질문을 받았다. Korean Student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대단한 준비이래 계획적으로 Test하고 있는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정치과 1학년생으로서는 좀 분에 넘치는 너무도 광범(廣汎)하고 심각(深刻)한 문제들이기 때문이었다. Dick군의 질문은 Hegel의 변증법(辯證法)에 근거를 둔 Marx의 유물변증법(唯物辯論法)과 그의 공산주의적 사회변혁이론(社會變革理論)으로 부터 Lenin과 Starlin과 Khrushchev의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문제, 특히 한국에서의 반민주적 제요소문제, 동서양인의 사고방식상의 차별, 유물론(唯物論)과 관념론(觀念論), 과학과 신 Newton과 Darwin, Einstein 그리고 Gamus, 물질불멸성(物質不滅說)과 우주……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이제 우리들의 대화의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본다면 이래와 같다.

Dick「Hegel의 변증법에 근거를 둔 Marx의 유물변증법 사회변혁이론은 논리정연(論理整然)하다. 그러니 공산주의는 인류문명에 공헌(貢獻)했다고 볼수 있는가?」

「의」—「그것은 단순히 논리학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인류사회만결코 그렇게 기계적 공식적인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이란 결코 전부 그대로 실천 내지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특히 Hegel의 변증법에 논리적 토대를 둔 Marx의 사회변혁이론은 Lenin이나 Starlin에 이르러는 완전히 뒤집혀 지고 독력주의 권력주의로 변하고 말지 않았는가? 인공위성 하나를 발사하는데도 이론상(도면상)의 수정만 번의 수정(修整)과 실천상의 수천 수만번의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Dick—「양진영(兩陣營)이 지금대로 나가다가는 Khrushechev의 말과 같이 다 멸망한다. 시로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인류정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가능하다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알아둘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아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 즉 세계의 공산주의화 정복이라는 계획에 이익이 되지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끌자는것과 한쪽에서의 이보전진(二步前進)을 위해 한쪽에서의 일보후퇴(一步後退)라는 Trick을 써 왔었을 뿐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말고 끝까지 우리의 긴장(緊張)과 경계(警戒)를 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파괴와 정복의 꼼을 주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들과의 정치·경제·문화……각 방면으로 부터의 경쟁에서 최후까지 이기도록 해야 할것이다.」

Dick—「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의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서양사람은 A가 B이고 B가 C면 C는 A이고, A가 B가 아니고, B가 C라면, C는 A가 아니라는데 동양사람은 A가 B이고, B가 C라 「A가 C로 되지않는다는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서양에는 일찍부터 논리학이 발달 되었지 따라서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전 하였다. 그런데 동양사람의 사고방식이 모순된것이 아니라 관념적(觀念的)이고 시적(詩的)이고 정서적(情緖的)인것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다. 인간이 물질문명만 내세운다면 유물론이 흘러 않는가? 물론 관념적 인생관을 주장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극(兩極)의 극단론(極端論)은 취할바고 논리학이나 기계적 우주관은 Einstine박사가 뒤집었는바, Gamus의 말과 같이 우주의 비논리성(非論理性)도 인정하고 동서양의 조화된 철학이나 인생관이야 말로 옳다고 생각한다.」

Dick—「나는 한국에 대해서 요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반민주적(反民主的)인 요소를 볼수있는데, 이렇게 생각 하는가?」

「의」—「민주주의의 이성이 한국에서 아직도 충분히 실천되어 있지 못한데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是認)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도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상과 실천간의 Gap이 있다. 문제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 한국의 많은 현존세대(現存世代)는 봉건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제의 40년간 통치를 겪었다. 최근에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약 반세기 사이에 이룩한 성과를 볼때 우리는 낙관(樂觀)한다. 역사에서 볼때 과도기(過渡期)는 많은 현자(賢者)를 배출(輩出)하였다. 역사는 변한다. 그 과정에서 지난 14기동안에 일본 쏘련 맨맥에 기적(奇蹟)이 일어났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후 한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것인가! 또 한가지 이유는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론에만 지배되지 않는다는것과 한국의 많은 청년에게 희망을 걸수 있다는 그점이다.」

◇본계획의 개모(槪貌)와 참가진용

이번 Project는 Hawaii가 제50번째의 주로 미국연방에 가입되는 기념행사로서 금후 14년간 2년단위 한번씩 갖도록 하는것이며 정식으로는 Asian Afro Student Leader Seminar라고 지칭(指稱)한다 이것은 주립 Hawaii대학 미국무성 교육교환계획기금으로 미래 자유세계의 중견인물(中堅人物)이될 A.A지구 청년학도기도자에게 미국을 소개하고 상호이해와 우린(友誼)을 증진하여 나아가 자유세계내의 침식(侵蝕)전제를 든든히 한다는 원대한 포부아래 출발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을 한두가지 써보면 아래와 같다.

a. 본계획의 운영 및 계획자—John. N. Stalker철학박사(역사학전공 Hawaii대학 Asia 연구과장 Radio News Cornentator 민주당 계 정치가로서 희최해 많은 동당 친우를 갖고 있다.)

b. 본계획의 실현에는 Hawaii주 출신 상원의원 Fung씨의(중국계) 활약이 컸고 일본계 하원의원 UENO씨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c. 본 계획은 2년주 실시 예정으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East west Center법안의 Experimentalstep의 성질의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초청받은 나라는 전부 A. A지역 40개 나라의 대표 40명이 었는데, 일부 Arab계 국가 대표의 불참(不參)으로 말미암아 실제 참가한 나라는 28개국, 대표수는 35명이었는데 Asia 12개국 대표 16명, 중동 8개국 10명, Africa 8개국 9명이었다. 나라이름과 대표수를 들면 (괄호내는 대표수)아래와같다.

[Asia] Korea (1) Cambodia (1) China(2) Hong kong(1) Indonesia (1) Japan(2) Laos(1) Malaya(1) philippines(2) Singapore(1) Thailand(1) Vietnam(1)

[Middle East] India(2) Irag(1) Lebanon(1) Libya(1) Morocco(1) Nepal(1) Turkey(2) United Arab Republic Syria(1)

[Africa] Ethiopia(2) Guinea(1) Kenya(1) Liberia(1) Federation of Rhodesia & Nyasaland(1) Somalia(1) Tanganyika(1) Uganda(1)

◇ Seminar 생활의 실제

이번 대회의 연구주제는 「변천(變遷)하는 사회에서의 대학의 임무」였다. 이것은 첫 일주일간과 마지막 일주일간의 도합 2주일 동안에 배정 되었었고 따로 각각 전공분야에 따라 교육(6명), 사회과학(14명), 인문과학(13명)의 세반으로 나누어 중간 2주일 동안에 배정되어 연구대 종사하게 되었었다. 나는 교육반이었지만 그 하나에 한하지 않고 각반의 중요 멤버에 자유롭게 참가했다.

이 중간 2주일간의 각 전공 Seminar의 주요제목을 들어 아래와같다.

a 共產主義의 硏究와 批判
b 社會學의 最近動態
c 西洋大學發達史
d 東洋大學發達史
e 社會敎育中心의 敎育
f 傳統爲主의 敎育
g 西洋近世文學批判發達史
h 西洋哲學史
i 東洋比較文學史
j 心理學의 最近發達
k 近代美國哲學의 主流
l 實存主義哲學
m 農業技術의 開拓에의 大學의 寄與
n 美國黑人敎育의 發達
o 敎育槪念
p 新聞學의 社會에있어서의 位置

Program에 앞서 주지사(州知事) Quinn씨와 Hawaii대학총장의 Snider씨의 열렬하고도 간곡한 환영사가 있었다. 그리고 강의는 주로 각 담화대학들이 담당했다. 강의와 함께 불불붙은 경쟁적인 질문과 토론이 오전 아홉시 부터 저녁 네시까지 매일 계속되었었다. 그특의 깊은 시간은 이 대회에 적지않은 기대와 흥미를 갖고있는 Honolulu 사회각층의 Party, Interview, Speech등 초청과 다음날의 연구준비및 우리대표 상호간의 친선활동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야말로 쉴틈없는 그날그날의 진장한 생활이었었다. 그리의 Schedule은 Hawaii의 주산업인 Pineapple농장 및 기공 공장의 견학, 사탕생산과정의 견학, 한국 희상을 주준중에 있다고 하며 동서 미술박물관 견학한 일정 끝났